

『擇里志』의 景觀論의 研究方向의 摸索  
- 研究史的 考察과 構成體系의 分析을 통하여 -

全美環\* · 鄭基浩\*\*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Toward the Directions of Landscape Study from the Review of  
Literatures and the Analysis of Composition of Taek-li-ji

Chun, Mi-Kyung\* . Jung, Ki-Ho\*\*

\*Graduate School, Sung Kyun Kwan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

ABSTRACT

Most of studies about Taegni-Ji were searched in the field of geography and history. These are revealed the conflict in respects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aegni-Ji. This study reviewed these studies and searched for limits and inquiries. Thus the parts of overlooking in them were dealt with and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haracters of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Taegni-Ji. This book is regarded as the subjects of traditional evaluation of landscape. Traditional landscapes were related to Pung-su in many sides. So the contents specially related to Pung-su which referred in Taegni-Ji were discussed through the system of Taegni-Ji. As a result, the terms of Pung-su used in Taegni-Ji must be researched which were specific term or not. These studies are bibliographical review. Taegni-Ji contains of many apparent view of rural landscape thus they will be carried to field survey. Research in this area is at an early stage. The present study was confined to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location of seowons. Howeve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offer meaningful guide for further research.

## I. 서론

擇里志는 李重煥<sup>1)</sup>의 유일한 저서로서 당시의 양반으로서의 보기 드문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실학서로 꼽히고 있다. 擇里志는 光文會本과 古書刊行本이 있으며, 1881년 擇里志가 日語版으로 인쇄되기 이전에 擇里志는 필사본으로서 읽혀졌다. 그 제목은 취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擇里志 이외에 「八域志」, 「可居志」, 「八域可居志」, 「山水錄」, 「東國山水錄」, 「震維勝覽」, 「總貨」, 「東國總貨錄」, 「八域可居處」, 「士大夫可居處」, 「吉地總論」, 「東岳小管」, 「八域紀聞」, 「博綜志」, 「形家要覽」 등의 명칭을 붙였으며, 유일하게 국문으로 된 책에는 「東國地理解」라는 한자의 표제가 있다. 이들 각각은 이익성의 해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헤아릴 수 있다. 즉, 「팔역가거지」란 것은 실세한 양반으로서 낙향하기를 생각하던 계층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동국산수록」, 「진유승람」은 시인묵객이 산수에 유람하려는 생각으로, 「동국총화록」은 상업하는 사람이 각 처의 물건과 교통의 이용관계를 참고 삼기 위하여, 「형가요람」은 풍수가 좋은 터를 잡기 위하여 일컬어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이익성, 1989:10). 이를 종합하면 擇里志는 가거지로서의 조건과 산수의 특징 즉, 경관과 경승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상업적 유통에 관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예로부터 이들 각 분야별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거나 참고되고 해석되어 왔던 것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일제시대에 日譯된 擇里志는 일본이 우

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홍이섭, 1974:27), 최근에는 풍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擇里志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同一人의 譯書가 '한국 최초의 풍수지리서'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되기도 하고(이익성, 1994), 실학사상서로 분류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이익성, 1991). 이와 같이 擇里志의 전해오는 異名의 다양함 만큼이나 이 책에서 다룬 내용도 매우 다각적인 것처럼 오늘 날에도 그 내용들은 각 전문분야별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고 있다.

擇里志에 대한 연구는 1949년 홍이섭의 연구에서부터 일본인의 3편의 연구<sup>2)</sup>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주로 지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리학자들의 人文地理書라는 견해에 대해 역사학에서는 歷史書라는 이론을 제기하며 擇里志를 분석하고 있다. 근년에는 이러한 기존의 이분된 주장에 대하여 경관인식적 측면에서 저자의 저술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와 풍수서로서의 여부에 대한 고찰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擇里志는 과거의 다양한 書名처럼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핵심이 달리 해석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각 연구들은 전문분야 별로 관련된 내용의 해석에 따른 편중된 견해에 연유되어 擇里志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저술 체계상에서나 내용상에서 보이는 모순점이 간과되어 온 바도 없지 않다. 특히, 地理學에서 風水에 대한 與否가 논쟁의 여지로 남아있는 등 擇里志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定說이 없는 가운데 많은 說과 주장으로 혼란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택리지의 다루는 전문분야 별로 특정시각에서 야기되는 주장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살펴진다. 그러므

註 1) 李重煥(1690-1765)은 숙종 16년(1690) 태어나 경종 연간에 정 5품 병조정랑이라는 당하관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영조 1년(1725) 목호롱 고변사건에 연루되어 35세에 관직에서 떠나 영조 32년(1756)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숙종과 경종, 영조로 이어지는 18세기의 노론과 소론, 남인이 각축을 벌이던 시 대였으며, 이종환은 이황에서 이어지는 남인에 속한다. 그의 家系는 近畿地方의 유학자 집안이었으며, 實學의 대가인 星湖 李瀾의 再宗孫으로서 李重煥은 실학자로서 평가된다.

2) 末松保和(1966)는 「八域志について」에서 당쟁사의 서술이 객관적이었다고 하며(鄭斗熙, 1988, 재인용), 小石晶子(1985)는 「李重煥과 『擇里志』」에서 李重煥의 생애와 주변 인물들을 고찰하여 『擇里志』의 저술과정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西川孝雄(1986)은 「擇里志의 異名について-付 文獻目錄-」에서 書誌學的 측면에서 종합정리하였다(吳星, 1990, 재인용).

로, 지금까지의 이러한 각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擇里志의 내용과 구성상의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정리에 의해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擇里志의 연구사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정리하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관론적 측면에서 다루는데서 요구되는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사에 대한 검토는 각 분야별로 택리지들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과 택리지에 대한 평가 및 견해와 풍수적인 측면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II. 擇里志에 關한 研究

### 1) 地理學的 觀點의 研究

擇里志에 관한 최초의 연구<sup>3)</sup>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것에서부터 비롯하여 擇里志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리학적 측면의 연구이다. 이들 부류의 연구들은 擇里志에 대하여 현대적인 인문지리서라는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전통지리서로서 풍수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徐樹仁(1963)은 地人相關論의 이론의 전개에서 현대지리학의 출발보다 앞선 地理書로 평가하였으며, 盧道陽(1963)은 可居地에 초점을 맞추어 卜居總論의 「地理」, 「生利」, 「人心」, 「山水」를 입지조건으로서 살펴보고, 풍수에 관한 견해는 있으나 풍수설을 신봉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 홍윤기(1971, 1975)는 擇里志는 인간과 자연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취락의 최적장소를 발견

코자 한 것이고, 장소의 상대적인 이점을 중요시하고 환경지각을 예감하였다고 하며, 반면에 풍수지리설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정론적 관점을 강조하였다고 했다<sup>4)</sup>. 朴永漢(1977)은 최적생활공간의 추구와 국방적 전략개념에 입각한 안보관을 주요사상으로 보았으며, 공간적 상호작용론을 체계화시키고, 지역의 相異性을 인문 및 자연적 현상과 관련시켜 표현함으로써 풍수와 같은 環境決定論이 아니라고 하였다. 李燦(1983)은 경제를 강조한 점이 종전의 地誌와 다르며, 지리적 개념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풍수사상에 의한 결정론적인 측면과 상호작용하는 측면, 그리고 문화생태학적인 면으로 분석하였다. 劉元東(1983)은 卜居總論의 「生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입지와 공간의 相互作用論, 地人相關論, 國防地理論을 그의 지리사상으로 파악하여 박영한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文明瑞(1984)는 四民總論이 李重煥의 정치 경제사상의 핵심이 되고, 八道地理學에서 自然地理보다 社會經濟面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살펴보고, 崔永俊(1990)은 擇里志를 우리 국토와 문화경관의 본질을 가장 한국적 시각에서 파악한 전통적 지리서로 정의하고, 八道總論의 서술방식이 종전의 지리서와 다르며, 취락입지와 卜居總論의 「生利」와 국방론에 대하여 고찰하며, 지리사상의 핵심요소로서 이상향의 추구를 제시하여 서양의 유토피아 사상과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헌에 대한 고찰과 평가인 것에 반해 현대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연구가 있는데, 韋元學(1985)은 전통적인 지역이론으로서 현대지역이론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며 「地理」의 여섯 조건으로 충남 천안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이론으로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개발개념도출이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또한, 韋元學(1992)과 김유혁(1990)은

註 3) 洪以燮은 1949년 「朝鮮科學史」에서 광문화본의 해제를 인용하면서 擇里志는 세종 이후 중국식에 의한 관찬지리지의 전통에서 이탈된 근대적 지리서로서 풍수지리적인 安住陽宅論의 사상이 약간 가미되었으나 지리학으로서의 이론적 구성을 지닌 인문지리학서라 하였다(박영한, 1977, 재인용).

4) 홍윤기의 Taekri-Ji: A Korean Settlement Geography(1971), Taengni-Ji: A Classical Cultural Geography of the Korean Settlement(1975)의 (박영한, 1977, 재인용).

「地理」, 「生利」, 「人心」, 「山水」를 地域理論으로서 규범이론과 기능이론으로 분석하고, 일본의 長井市の 지리적 특성을 확인하여 과거와 현대에 이상적인 땅으로서 평가되는 기준으로서 적용가능성을 살핀 바 있다.

한편, 근년에 풍수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택리지가 풍수와 관련되어 언급되어 온 것에 대해 崔永俊(1994)은 풍수서로서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래서, 풍수가 민족문화에 끼친 영향을 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擇里志가 風水書로 해석되는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여 擇里志를 풍수의 祖宗論, 形局論, 地域風水論, 陽宅風水論, 地人相關論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擇里志의 산맥의 祖宗論과 嶺湖南에 대한 지역적인 편견에 대해서는 이익 등의 실학자들과 불교의 우주관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으로 그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었다고 하며, 陽宅風水論은 國都風水, 都邑風水, 聚落風水로 나누어 國都에 관한 부분이 가장 풍수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왕조의 정치이념으로까지 영향력을 발휘한 풍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卜居總論에는 陰宅風水가 없으며, 풍수의 입지조건으로 해석되는 「地理」의 水口, 野勢, 山形, 山勢, 土色, 朝山朝水를 지리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지적하였고, 마을의 입지를 「地理」 뿐 아니라 「生利」, 「人心」, 「山水」의 네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점에서 풍수서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地人相關論의 風水論에서는 풍수와 관련된 因果論적인 사례들에 대해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된 현실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결과적으로 擇里志는 풍수서용어나 이론을 적절히 수용한 인문지리서이며 풍수서가 아니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학적 측면에서는 지리서라는 정의하에 지리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지리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팔도총론, 북거총론

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부분적으로 풍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리 외에 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입지조건에 포함시킨 것이 풍수와 다른 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실학자적인 계획이나 개발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지리서라고 규정할 때 書頭に 四民總論을 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구성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2) 歷史學的 觀點의 研究

역사학적인 측면에서는 時代史, 社會史, 政治史, 經濟史 등의 관점으로 세분될 수 있다. 金潤坤(1973)은 卜居總論의 「生利」와 四民總論과 總論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洪以燮(1949)은 지리학으로서의 이론적 구성을 지닌 인문지리서라고 한 바 있었으나, 그 후, 홍이섭(1974)은 택리지의 구성에 있어서 八道總論은 이상향의 논리를 추출할 기반의 설정이며 卜居總論이 핵심이고 擇里志의 기본정신은 이상향의 추구라고 하며, 단순한 지리서로 이해되기 보다는 정치, 사회적인 제반사항을 기록한 저서로서 관련연구들에서 저자의 원정신 과는 달리 이해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金貞深(1982)은 李瀾과 朴濟家를 李重煥과 비교하여, 改革論 및 地勢論을 고찰하였으며, 그의 지리관에서 풍수지리학적인 면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鄭杜熙(1988)는 擇里志를 강한 역사관의 표현으로 판단하고, 卜居總論의 「人心」과 「生利」를 擇里志의 핵심이라고 하여 저술하려는 저자의 본 뜻은 역사서의 저술에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洪이섭의 「지리서 이상의 뜻」이 있다는 의견에 역사서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저술 내용 중 산천만 제외하면 모든 내용이 곧 역사서술에 알맞는 사항」이라고 하여 地理書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山川의 내용이 歷史

註 5) 주요 내용은 平壤, 安東이 行舟形이므로 우물을 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강물을 식수로 이용한 데 대한 구설이며, 우리나라의 지형이 중국에 桴하는 형상이므로 옛부터 중국과 친하다고 한 것은 황해도 연안에 비옥한 평야가 많고, 문명의 중심지로 양 지역간의 교류는 당연한 것이며, 百里되는 들판이 없어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인물은 교육에 의해 길러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최영준, 1994:118). 그러나 평야가 행주형이라는 것은 '전해오는 말'이라고 하여 그의 견해가 아니며, 안동이 행주형이라는 것은 택리지의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서술은 택리지 체계의 중심내용인 북거총론의 「산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리학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보다는 의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정기호는 禮道와 소박함이라는 의도성으로 파악한 바 있다(정기호, 1990:54-55).

책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吳星(1990)은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生利」의 경제관련기사의 서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제적 현상에 대한 사실적인 기술에 그치고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실학자들에 비해 그의 경제론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또한, 八道總論에서 언급된 항목들이 「地理」, 「人心」, 「生利」, 「山水」로 재분류되어, 「生利」條가 八道總論에서 거론한 경제문제들에 대한 정리부분이면서도 「山水」條에 물산이나 물화유통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점을 再考의 여지로 남겨두고 있다. 朴光用(1990)은 「人心」을 중심으로 李重煥의 정치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사실의 기술에 치중하며 이상적인 정치체제론을 남기지 않았고, 정치체제 서술부분이 체계적이지 않고 연혁 또한 정확치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어 역사서로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지리서 이상의 의의를 발견하고 주로 정치와 경제에 해당하는 「人心」과 「生利」를 다루며,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사실적인 기술이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서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지역이론으로서 개발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실학자라는 점에서 사실에 대한 서술 이상의 개혁적인 제안이 없고 역사서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서로서도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리학에서 사민총론이 서두에 온 것이 지리서로서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서의 핵심이 되는 산천의 내용과 「산수」조가 역사서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으로 남게 됨으로써 지리학이나 역사학의 어떤 한 견해에서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景觀論의 觀點의 研究

지리학과 역사학적 연구 외에 擇里志가 인간과 자연의 관련성을 논했다는 점에서 조경학적인 접근이 있었다. 鄭基浩(1990)은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하여 내용과 문맥상의 모순성을 다루고 이것이 四民과 관련되며 易의 원리를 매개로 논리적

으로 이루어짐을 보았다. 이 연구는 지리학과 역사학적 측면의 고찰에서 보이는 상충되는 부분을 내용과 구성상에서 검토한 것이 된다. 또한 정기호(1993)는 복거총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서 「지리」, 「생리」, 「인심」은 복거를 위한 원론적 틀이며, 「산수」는 이들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지리」, 「생리」, 「산수」를 각각 理, 氣, 形으로 판단하고, 기본사상은 心象의 形象化로써 산수의 形으로서 이중환의 소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것을 한양을 사례로 하여 경관인식과 평가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풍수적인 용어 및 개념은 '땅의 이치'라는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대상을 가시적, 구체적인 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활성화를 위한 해석수단이며, 「地理」의 조건은 풍수적 국면의 원용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山水에 대한 사유방식적 특징인가 하는 점에 재고의 여지를 두고 있다.

### 4) 기타

이 외에 國語史的 研究로서 許雄(1983)의 擇里志의 국문판인 「東國 地理 解」의 국어사적인 위치를 고증한 것이 있으며, 여러 연구와 저술에서 택리지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경우가 보인다.

擇里志를 인용한 연구로는 全相運(1976)은 풍수지리적 방법과 태도를 배격하고 그 이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지만 풍수지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하고, 崔昌祚, 朴英漢(1978)은 擇里志의 八道總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 풍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地誌的 國家位置에 대한 설명이지만 崑崙山과 白頭山을 祖宗山으로 세운 것을 풍수에 대한 세력이 상당히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간주하여 택리지를 國域風水의 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리고, 崔昌祚(1984)는 擇里志가 풍수이론을 적용한 양태풍수처럼 山水를 분석하고 좋은 장소에 대한 제시를 하였으나 풍수설과는 달리 과학적 체계화를 이루지 않았으며, 현대지리학의 중심과제를 다루고 있어 근대지리학의 팔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풍수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창조(1990)는 실학자들의 대표적인 可居地觀으로서 擇里志 중 卜居總論의 내용이 풍수의

명당관과 일치하며 풍수사상의 골자가 擇里志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몽일(1991)은 八道總論, 卜居總論의 「山水」, 「人心」 등의 많은 부분을 그의 풍수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지리학에서 풍수서로서의 여부를 가리고자 하였듯이 풍수의 관점에서 擇里志를 비교하는 면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주남철(1980)은 '人傑地靈' (이익성, 1992:72)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人傑을 문화창조의 주체로 보고 地를 자연으로 해석하였으며, 이종필(1983) 등은 「地理」의 조건을 풍수지리의 거주지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오홍석(1989)은 주거조건으로서 「地理」와 「生利」를 인용하여 용수와 지질의 관계, 한강물이 음료수로 적합함을 말하고, 토지와 교통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 읍성 취락이 성립 발달하였다고 하며, 강원도에서 평지와 산지의 삼림이 농사터로 바뀌었다(이익성, 1992:59)는 서술에서 250년전에 火田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최기수(1989)도 숲터를 마련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로서 「지리」의 조건을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리」의 조건을 입지조건으로 제시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을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 5) 小結

지금까지 있어온 擇里志 관련 연구들은 지리학과 역사학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 주종을 이루고, 인용 연구에서는 풍수와 비교하고 풍수를 설명하는데 인용되고, 풍수서로서의 여부를 가리고자 하였다. 기타 환경적 측면의 공간을 다루는 부류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 마을을 다룬 내용과 결부하여 해석의 근거로서 또는 부분적인 자료로서 단순히 인용하여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擇里志 자체를 주 대상으로 살펴온 지리학과 역사학적인 측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모두 卜居總論이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리서로 보는 지리학에서는 卜居總論의 「地理」, 「生利」, 「人心」, 「山水」를 취락의 입지조건으로 간주하여 「山水」에서 서술하는 우리나라의 山水體

系를 다른 地誌의 山水체계와 비교평가하거나 八道總論과 「山水」를 총괄하여 可居地를 논함으로써 지리서로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나, 四民總論을 서두에 둔 것이 지리서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두희가 파악한 바와 같이 역사의 서술을 저술의도로 파악한 역사학의 측면에서는 「山水」만 제외하면 모든 내용은 곧 역사서술에 알맞는 사항이라고 하여 지리서로서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역사서로서도 명쾌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역사학적 관점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山水」에 대해 크게 작게 간과하고 있는 면으로 보아서도 정두희의 시사가 대체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지리서도 역사서도 아니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으며, 이는 지리서와 역사서라는 견해 외에 또 다른 성격의 규명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경관인식 측면에서 살핀 연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각론에 대한 해석에서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 모순점을 재검토한 것이 된 셈이다.

### Ⅲ. 擇里志 구성체계의 검토

擇里志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卜居總論은 대체로 입지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락의 입지에서 풍수가 거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처럼 언급되어 오듯 취락의 입지와 풍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함께 앞의 연구들에서 擇里志가 풍수서로서 연관되면서 풍수로서 규정이 되는 주된 것은 卜居總論에서 「地理」를 논하는 주된 개념인 水口, 野勢, 山勢, 山形, 土色, 朝山朝水의 여섯 항목이 풍수의 조건과 일치하고, 국토의 地形體系의 서술에서 崑崙山을 祖宗으로 본 것이 풍수의 地勢觀과 일치하며 풍수의 明堂論과 일치한다는 점들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풍수서가 아니라고 주장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서술내용상에서 堪輿家, 術士, 形家 또는 南師古와 같은 특정인물을 들어 그들의 말이 주로 인용되고 있는 정도이며, 길흉화복에 대한 언급

이 없고, 실사구시로서 경제를 중요시 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최영준은 풍수서가 아니라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풍수와 관련된 택리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바가 되고 있다.

그러나, 擇里志가 可居地를 풍수의 사고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풍수가 아니라는 정의를 내리기까지는 풍수를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의 思考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연 擇里志가 풍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자연에 대한 사고가 풍수의 용어로 해석이 가능할 만큼 풍수의 논리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李重煥은 지형지세를 논하고 판단하는 데 풍수가 말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대한 서술에서 다분히 풍수적인 표현을 쓰고 풍수의 용어를 쓰는 한편,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결과론적으로 지역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擇里志의 전체적인 체계와 풍수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풍수와 관련된성과 지리학과 역사학의 연구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택리지의 구성과 체계상의 특징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擇里志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구성체계의 분석

擇里志는 四民總論, 八道總論, 卜居總論, 總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개별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四民總論이 士農工商의 四民의 발생과 연원에 대하여, 八道總論은 평안도에서 시작하여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의 순서로 八道の 地域과 地勢, 風土, 人物, 歷史, 景勝地, 山, 河川, 亭子, 寺刹, 交易, 토지의 生産性, 風俗, 生活相, 人心, 士大

夫의 有無, 可居地와 不可居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卜居總論에서는 가거지의 조건으로서 「地理」, 「生利」, 「人心」, 「山水」를 각각 소항목으로 제시하여 상술하고 있다. 즉, 「地理」에서는 가거지 선정에 필요한 지리적인 조건인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質, 朝山朝水의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生利」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물을 통한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지역을 사례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人心」에서는 팔도의 서민과 사대부의 경우로서 따로 논한다고 전제한 후, 봉당의 원인이 된 吏朝正郎의 문체에서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의 봉당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山水」는 앞의 「地理」, 「生利」, 「人心」과는 다른 체계로 구성된다. 앞의 세 항목이 복거를 위한 세부조항이라고 한다면, 「山水」는 말미의 '대저 山水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sup>7)</sup> 라는 부분이 「地理」, 「生利」와 같은 「山水」에 대한 복거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며, 이는 자연환경으로서 山水에 대한 그 자신의 총체적인 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山水」의 전체적인 구성의 특징의 보아서도 「山水」를 통해서 「地理」와 「生利」와 같은 자연환경의 조건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山水」의 구성은 국토의 지형을 山水의 지형지세로서 논하며, 산맥을 따라 名山, 島嶼, 景勝地, 都邑, 江居, 溪居, 海居를 차례로 거론하면서 삶터로서의 가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이라는 實可居地로 귀결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산을 중심으로 국토에서부터 취락으로 집약되는 체계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 집약해가는 논리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끝으로 總論은 앞의 四民總論, 八道總論, 卜居總論을 총괄한 擇里志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註 6) 이 부분은 결국 사대부와 관련한 봉당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地理, 生利, 山水 등 다른 항목에서 서술된 내용과 비교할 때, 각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人心」을 다룬 것이 아닌 이례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정기호, 1990:54).

7) 살고 있는 곳에 山水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山水가 좋은 곳은 生利가 박한 곳이 많다. 사람이 이미 자라처럼 모래 속에 살지 못하고, 지렁이 처럼 흙을 터지 못하는데, 한 갓 山水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십리 밖 혹은 반나절 길 쫓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山水가 있어, 매양 생각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지손 대대로 이어나갈 만한 방법이다(이익성 역, 1989:262).

생각할 수 있으나, 四民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 부분에 집결되어 있고, 앞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山水」에서 가거지를 서술한 것과 상관없이 '동서남북 살 곳이 없다'라는 극히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四民總論, 八道總論, 卜居總論에서 보이는 크고 작은 모순적인 서술과 같은 맥락으로 앞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땅 아닌 땅'이라는 비약된 논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sup>8)</sup>

## 2) 風水의인 측면의 검토

擇里志가 풍수로 이해되는 부분은 卜居總論의 「地理」의 山形, 水口, 野勢, 土色, 水理, 朝山朝水 여섯 요소가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부분이며, 이와 함께 서술상에서도 풍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쓴다는 것과 풍수사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점이다. 崔永俊(1994)은 擇里志와 풍수를 祖宗論, 形局論, 地域風水, 陽宅風水, 地人相關論의 항목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풍수의 이론은 더욱 복잡하며, 또한 몇 가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풍수로서 지형을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것처럼 擇里志가 풍수와 일치되는 부분에서 풍수인가 아닌가를 토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擇里志를 현대적인 인문지리서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山水에 대한 인식이 풍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또는, 풍수가 山水인식의 틀로서 그 기본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풍수설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풍수지리설이란 陰陽說과 五行說을 기반으로 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論理構造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相地技術學이며(최창조, 1984:32), 그 시행에 있어서 山, 水, 方位라는 세 가지 요소<sup>9)</sup>의 조합으로 구성된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座向論, 形局論으로서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崔昌祚는 풍수사상의 이

론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땅에 대한 이치를 논구한 經驗科學的 論理體系와 地氣가 어떻게 人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밝힌 氣感應的 認識體系가 그것이다. 氣感應的 認識體系는 同氣感應論과 所主吉凶論, 形局論이 해당되고, 經驗科學的 論理體系에 해당하는 것은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座向論이며(최창조, 1984:33-40), 이들에 의거한 조건을 갖추어서 비로소 명당으로 된다.

택리지와 풍수 모두 산형을 중요시하고 있다. 산개념에 있어서 택리지에서는 복거총론 「地理」의 山形을 논하는 부분에서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싼 것은 산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 들이라 한다'(이익성, 1990:126)고 하고, 풍수에서는 一寸이라도 높으면 山이라 할 수 있고 一寸이라도 낮으면 水라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평탄한 평야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맥이 끊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것'(최창조, 1984:79)이라 하여 산개념에서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서 볼 때, 이중환은 미세한 지형변화에 구애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논했다고 할 수 있겠다.

擇里志에서 풍수적인 표현의 많은 부분은 풍수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풍수사의 말 인용한 부분은 팔도총론에서 '태백산이 있는데.. 하늘에 치솟은 水星形局이라'(이익성, 1992:59), 경주에 대해 '回龍顧祖하는 지형이라 한다'(이익성, 1992:60), 문경에 대해 '지대가 높은 고을이면서 아주 험한 산 속이어서 殺氣를 조금은 벗었다'(이익성, 1992, 68), '유구, 마곡사 두 골물 사이를 피란할 곳'(이익성, 1992:88), 청주의 '살기를 벗었다 한다'(이익성, 1992:92), 여주읍의 英陵에 대해 '들어오는 용이 子坐이고 서북방 물이 정동방으로 흘러들어오므로 여러 왕릉 중에서 제일이다'(이익성, 1992:102), 한양의 白岳山에 대해 '하늘을 꿰뚫는 木星의 形局이며 宮城의 主山이다'(이익성, 1992:112), '왕씨를 이어 임금 될 사

註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易의 사상으로 해석한 바 있다(정기호, 1990:56).

9) 崔昌祚는 산, 수, 방위 세 요소에 인간을 포함시키고 있다.(최창조, 1984:32).



람은 이씨이고 한양에 도읍 한다' (이익성, 1992:113), 개성에 대해 '금돼지가 누워있는 곳이다' (이익성, 1992:115), '메기장 심는 밭이다' (이익성, 1992:115), '진봉산이, 옥녀가 화장대를 향한 지형이다. 그러므로 고려임금이 여러 대로 上國의 공주가 짝하게 되었다. 또, 筆山이 있는 까닭에 나라 사람이 중국의 과거에 많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백호쪽 산이 강하고 청룡쪽 산이 약한 때문에 나라에 훌륭한 정승이 없고, 여러 번이나 무신의 변란이 있었다' (이익성, 1992:122)이다. 북거총론의 「산수」에서는 開城 五冠山의 '母峯은 水星이고 즐기는 木星이라' '하늘에 모여드는 土星이다' '기상이 평양과 비교하여 더욱 짜임새가 있다' (이익성, 1992:178), 한양 삼각산의 '매양 정남향으로 위치를 잡는 것을 좋지 못하다' (이익성, 1992:179), '속리산은 돌 火星' (이익성, 1992:164)이며, 그 외의 산은 南師古의 말을 주로 인용하는데, 소백산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덕유산의 舞豊, 지리산의 靈源洞, 鑰店村, 君子寺, 八靈山을 福地라 하고 있다(이익성, 1992:164-169). 그리고, 「지리」에서 '祖宗되는 산은 다락집이 치솟은 형세라야 좋다' (이익성, 1992:126)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수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한양과 개성에 관련된 지형과 지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경주, 문경, 유구, 마곡사, 청주, 여주의 영릉, 태백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팔령산의 산에 대한 인용이다.

풍수용어를 사용한 것은 祖宗山, 靑龍, 白虎, 水口, 鎮山, 主山, 朝山, 案山, 案水, 形局의 용어, 山形에 대한 것이 있다.

먼저, 祖宗山은 황해도 綿嶽山에 대해 '이 산이 황해 일도의 祖宗이 되는 산이다' (이익성, 1992:45)라고 하고, 장풍법의 四神砂의 용어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강원도 횡성에서 '두강이 청룡, 백호로 되다가' (이익성, 1992:57)라고 하여 사신사 중 단지 청룡, 백호 만을 언급하며, 각기 단 일 회에 그치고 있다.

得水法의 용어인 水口는 팔도총론에서 황해도의 '절령이 구월산과 동서로 서로 마주하여서 하나의 큰 水口를 이루었고' (이익성, 1992:47), 경

상도의 '두 지맥은 김해에서 크게 합쳐지고, 70 고을이 하나의 水口로 빠져나가면서 큰 판국을 만들어 놓았다' (이익성, 1992:60), 충청도 아산현 소사하와 곡교의 물이 호수를 만들고 호수 남북의 산에 대해 '이 산들이 수구를 감싸안아서 문 같다' (이익성, 1992:97), 경기도 여주읍백애촌에 대해 '수구가 잠겨진 듯하여서 강물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알지 못할 듯하다' (이익성, 1992:103), 강화부에 대해 '한양 수구의 나성이 되어 있다' (이익성, 1992:104), 이하 북거총론 「산수」의 묘향산 '판 길은 없고 오직 서남쪽 수구를 따라' (이익성, 1992:170), 삼각산에서 '(한양의) 수구가 낮다' (이익성, 1992:179)로서 수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며 개성과 한양의 수구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鎮山은 팔도총론에서 계룡산이 공주의 진산(이익성, 1992:85), 영인산이 아산현의 진산(이익성, 1992:96), 송악산이 개성의 진산(이익성, 1992:115)이라고 하여 都邑의 터가 되는 산인 계룡산과 송악산이 거론된다.

主山은 팔도총론의 충청도 장미산이 가흥의 주산(이익성, 1992:99)이라고 하고, 朝山은 팔도총론의 충청도 유구에 대해 '산위에 맺힌 터이크르 조산이 보이지 않아서' (이익성, 1992:88의 案山은 朝山의 誤字이다)라고 하며, 이 외에는 조종산, 사신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유구와 형세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案山과 案水는 강화 교동도에 대해 '개성의 타갈 안산이 되고, 섬 북쪽은 한강인데 여기에 와서 개성의 안수로 되었다' (이익성, 1992:109), 개성에서 '용수, 진봉 두산은..성 안의 안산이다' (이익성, 1992:122), 북거총론 「산수」의 개성의 오관산에서 '송천포는 (개성)의 안수' (이익성, 1992:178), 계룡산은 '전면에 안수가 적다' (이익성, 1992:179)고 하고 있다. 안산, 안수도 역시 도읍인 개성의 안수에 대해 자세히 인용하고 있다.

形局論의 용어로는 북거총론의 「산수」에서 계룡산의 '回龍顧祖의 산세는 힘이 적다', 文化 九月山이 회룡고조 지형(이익성, 1992:179-180)이라고 하여 회룡고조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山形에 대해서는 팔도총론에서 월출산의 '한

껏 깨끗하고 수려하여 火星이 하늘에 오르는 산세' (이익성, 1992:77), 북거총론 「산수」에서 '경상 1도에는 들 화성이 없다' (이익성, 1992:170), 묘향산이 土星이고(이익성, 1992:170), 삼각산의 터에서 관악산에 대해 '비록 火星이 앞을 바치고 있어' (이익성, 1992:179)라고 하였다. 풍수에서 말하는 산형은 五星에서 九曜로 그리고, 더욱 세분된 많은 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擇里志에서는 五星의 화성과 토성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구의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에는 간단한 몇 개의 용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의 요체가 되는 장소선정의 정혈법, 풍수의 본질론에 가장 접근된 분야라고 하는 좌향론(최창조, 1984:38-40)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입지조건을 최후 단계로서 주로 지세의 외관에 의해 그 감응 여부를 판단하는 형국론(최창조, 1984:39)에 대해서는 감여가 등의 풍수사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풍수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과 풍수용어를 사용한 것의 대부분이 한양과 개성에 관련된 지형지세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유구, 여주, 묘향산, 계룡산 등의 지역에 중복되어 사용된다. 묘향산은 단군이 태어난 곳(이익성, 1992:26)이라고 하며, 계룡산은 태조가 도읍터로 정하려 한 곳(오홍석, 1989:157)이자 都邑의 터가 되는 산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곳이다. '대저 전라도와 평안도는 내가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익성, 1992:160) 묘향산을 토성이라고 한 것은 그의 판단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말한 것이며, 계룡산도 이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풍수에 대해 알려진 곳과 용어의 한정된 사용에 의해 풍수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리학은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지리학과 사대부의 교양 내지 덕목으로서의 지리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고(양보경, 1987:5), 풍수서에서는 주산, 혹은 진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예가 별로 없고 최근에 우리글로 발간된 풍수서에는 주산이란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며, 鑛山의 용어도 풍수술어라기보다 조선시대에 일반적 의미로 쓰여진 말이라

고 한다(최창조, 1990:225). 그러므로 택리지의 지형지세에 대해 간간이 나타나는 풍수용어는 術士로서가 아니라 사대부의 지리적인 지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중환은 '본 바와 들은 바로서 기록한다' (이중환, 1990:160)고 하였는데 '본 바와 들은 바'를 구별하자면 '들은 바'는 풍수사가들의 풍수적인 지세의 판단을 인용한 것이며, '본 바'는 그가 접한 생활과 풍속 및 지형지세에 대한 시지각적인 표현일 것이다. 즉,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멀리 트이며, 강 너머 산이 좌우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가리워서, 낮은 둔덕, 양편에 가리운 산, 강을 거슬러 우뚝 솟은 산, 구불구불 멀리 흘러드는 물, 오곡과 목화 가꾸기에 알맞은 땅, 기름진 토지, 부유한 자가 많은 곳 등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본 바'의 실사적인 표현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형에 대해 '殺氣를 띠었다'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땅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풍수의 環境決定論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의 결과로서 땅을 평가하는 因果論的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전라도의 남원성에서 '정유년에 왜적에게 함락되기도 한 땅이어서 그 지방에는 아직도 은은한 살기를 띤다' (이익성, 1989:101)고 하며, 충청도의 청주에서 고려말 충신 이승인이 정도전의 모함으로 죽음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쪽은 높고 북쪽은 낮아서 은은한 살기가 있다' (이익성, 1989:120)라고 하고 있고, 충청도 충주읍에서 '임진년에 신립이 왜적에게 패전한 것도 이 지방이었다. 그리하여 常時에도 살기가 하늘을 찌르며 해가 빛이 없다' (이익성, 1989:127)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는 李重煥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극히 개인적인 견해로서 평가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존의 지리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지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간과된 것은 풍수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수적인 표현의 대부분은 八道總論에 집중되고 있으며, 卜居總論의 實可居地인 野邑에서는 江居의 평양에서 전해오

는 말에는.. (이익성, 1992:195)<sup>10)</sup>이라고 하여 풍수의 형국이 언급되는 것 외에는 풍수의 용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으며, 「地理」의 여섯 요소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하지 않고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sup>11)</sup> 이는 八道總論이 조선 시대의 보편적인 地誌書 수준의 일반적인 사항을 거론한 것이고 卜居總論의 「山水」가 중심내용이 되고 있는 擇里志의 구성체계를 염두에 두고 감여가 등 풍수사의 말을 인용한 八道總論이 擇里志에서 차지하는 서술상의 위계를 생각해보면, 결국 풍수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로 서술된 부분은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일반론적인 평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卜居總論에서는 可居地의 총체적인 형상을 「地理」에서 水口가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지며 砂土로서 굳고 촉촉한 땅과 함께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모습의 주산, 그리고 물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산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마치 물과 짝을 이룸으로써 생성의 묘를 지남과 같고 물 너머의 물과 산 너머의 산으로서 조산조수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의 산과 길고 멀게 흘러드는 물(이익성, 1989:162-165)로 표현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최창조는 이 내용이 거의 풍수의 명당관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며(최창조, 1990:432), 풍수에서 이야기되는 吉地의 조건 즉, 來龍의 脈勢, 穴을 중심으로 한 吉地 주변의 山勢, 물이 흐르는 方位, 生氣가 취합하는 穴處, 坐向, 相補相生하는 전체적인 國勢를 모두 갖춘곳과 같은 조건을 위의 가거지의 형상과 비교하면 擇里志가 취하는 가거지의 조건에는 다분히 땅의 형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있다는 풍수가 지닌 쉽게 설명할 수 없는(또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성을 지닌)

氣感應의인 부분이 배제된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풍수지리에서 거론되는 산과 수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形으로서의 산수를 넘어선 이른바 형이상학적 체계인 象에 속하는 것이며(장, 1978:16), 말이 뜻을 전하고자 하여 있는 것인데 뜻은 없고 말만 남아, 『地理大成 山法全書』(上海, 九經書局)에서 조차 산형에 대해 '官은 秀麗, 鬼는 抱身, 曜는 長行, 禽은 小圓墩을 要하는 데, 알기 매우 어렵다'(최, 1984:67)라고 하였으니, 풍수사상의 논리체계는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설명하기에 현실성이 희박(최창조, 1984:432)할 수 밖에 없었던 반면에, 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택리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와 택리지는 좋은 땅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각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이상적인 卜居에 대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풍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특히, 취락의 경우 산, 수는 일면 생존과 직결하여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와 함께 전통사회에서 회자되어온 문화적 요인을 내포한 대상이 된다. 배산임수와 남향, 그리고 둘러싸인 공간감을 주는 곳이 공간의 선택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비판을 받는 것은 풍수이론 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비난이 아닌 풍수로 인한 관습과 제도상의 병폐에 집중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崔昌祚, 1984:52).

결과적으로 擇里志와 풍수설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과 이론적인 틀에 비추어 사실을 판단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추구하는 삶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택리지를 풍수와 관련시키는 각 연구들의 주장에는 추구하는 것이 풍수와 같다고

註10) '전해오는 말에는 평양의 지세는 배가 가는 형국이므로 우물을 파는 것을 꺼린다. 예전에 우물을 팠더니 읍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므로 드디어 메워버렸다 한다'(이익성, 1992:195)

11) 강가의 살만 한 곳으로 첫째로 치고 있는 평양의 外城에 대해 '대개 평양은 앞뒤에 백리나 되는 들만이 탁 트여서, 명랑한 까닭에 기상이 크고 넓다. 산 빛은 수려하고, 강은 급하게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앞면에서 출렁거린다. 산은 들과 어울리고, 들은 물과 어울려서 평탄하고 수려하다. 강물은 넓고 커서, 크고 작은 장삿배가 물결 가운데에 들락날락하고 층층 바위는 강 언덕을 둘러 있다. 서북쪽은 좋은 밭과 평평한 두렁이 지평선까지 펼쳐졌으니, 이것은 하나의 別天地이다'(이익성, 1989:249).

해서 풍수의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경향이 다분히 개재되어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땅에 대한 사고가 풍수설을 극복하고자 하나 대단히 풍수의 사고에 기울어져 있으며, 또한 의존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풍수의 논리를 현실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擇里志의 可居觀이라고 할 만큼 李重煥의 자연에 대한 사고체계와 풍수의 사고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山, 水, 方位로서 이론체계를 풍수설만의 고유한 체계라고 본다면 擇里志는 풍수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山, 水, 方位의 요소를 가리는 것이 풍수설 이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곳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擇里志가 풍수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며, 풍수의 논리체계를 취하지 않고서도 吉地를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며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풍수의 이론적인 체계에 맞추어 땅을 평가하지 않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상적인 가거지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풍수설 외의 자연에 대한 사유방식을 보여준 셈이다.

#### IV. 고찰 및 경관론적 연구방향

擇里志의 跋文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뜻이 있으리라’고 했던 李重煥의 말처럼 擇里志는 과거와 현재에 사람에 따라 다각적으로 그 중요성을 논하며 다루어져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고, 擇里志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통해 역사서로서 또는 지리서로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풍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모순점은 全文이 유기적으로 짜여져 교묘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간 것이 지리서의 형식에 가려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기인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擇里志가 지리와 역사를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山水의 사실로써 그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관인식과

평가의 측면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풍수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음택풍수가 없다는 실학자적 측면과 산 개념이 다르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시지각적인 서술을 했다는 점에서 풍수와 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풍수적인 견해와 용어의 대부분이 지역평가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팔도총론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서 풍수의 이론으로 지리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풍수여부와 관련된 논쟁의 발단은 소위 풍수용어라고 생각되는 몇몇 용어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극히 제한된 용어만을 사용하고 풍수사의 말을 인용한 것도 개성과 한양 등 도읍에 관련된 산과 수, 지역에 치우치고 있어 풍수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擇里志에 관한 定說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擇里志에 대한 풍수로서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지리서라는 전제에서였으며, 山水에 대한 李重煥의 인식이 표출된 극히 주관적인 경관인식적인 면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관인식과 평가에 대한 측면을 연구로서 山水觀에 의거한 형식을 빌어 李重煥의 심중과 뜻을 펴던 내용의 책이라는 한양에 대한 山水의 해석에서 매개체로서의 山水의 측면을 고찰한 정기호(1990, 1993)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히, 山水(또는 卜居總論)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擇里志는 여타의 地誌書 類의 문헌과는 달리 (八道總論에서는 다분히 이들 地誌類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卜居總論에서는 일면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한 점도 없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뚜렷한 견해를 피력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擇里志의 문헌고찰에 의한 書誌學的 論證에서 벗어나 이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경관연구 특히, 결과론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황의 조사에 근간을 둔 경관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택리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상에 대한 서술이 과거의 사실

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인 반면에, 과거와 현재에 거의 변하지 않은 자연환경의 산, 수, 들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視知覺의인 평가적인 서술은 이중환이 實査한 지역에 대해 사례별로 그 山水에 대한 형상을 서술한 景觀평가의 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택리지의 내용 중 무엇보다도 현재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관평가에서 서술적인 방법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계량적인 방법에 비해 객관성이 결여되어 평가의 자료로 삼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擇里志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을 통해 비록 개인적인 시각이긴 하나, 대상지역과 山水의 형상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일관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승지와 취락의 자연경관에 대해 계량적이고 풍수적 혹은 의미적인 분석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연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 및 평가 기준으로 전통적인 자연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인 문헌상의 연구에 그치는 반면에, 지리학에서 지역이론으로서 현지에 적용한 사례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택리지에 나타난 자연경관에 대한 평가대상을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대상과 비교해봄으로써 그에 대한 실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곧 택리지를 통해 李重煥이 표명하고자 한 뜻을 공간과 실체를 통해 드러내 보는 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1. 金裕赫(1986) "擇里志의 理論에 基ついて 見た 長井市 地域의 特性에 關する 考察", 「地域學 研究」(日本地域學會), (17):227-240.
2. 金潤坤(1973) "李重煥의 擇里志", 「실학연구입문」(역사학회), pp. 119-139.
3. 金貞深(1982) 「李重煥의 擇里志에 關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73p.
4. 盧道陽(1963) "八域地, 可居地 解析", 「지리학」, (1):91-96.
5. 文明瑞(1984) 「擇里志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39p.
6. 朴光用(1990) "李重煥의 정치적 위치와 擇里志 서술", 「진단학보」, (69):127-143.
7. 朴英漢(1977) "淸潭 李重煥의 地理思想에 關한 研究", 「駱山地理」, (4):25-39.
8. 徐樹仁(1963) "擇里志 研究序說", 「地理學」, (1):83-90.
9. 楊普京(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關한 研究", 「地理學論叢」, 別號3, 174p.
10. 吳星(1990) "「擇里志」의 八道總論과 「生利」條에 對한 고찰-경제관계기사의 서술과 關連하여", 「진단학보」, (69):145-163.
11. 오홍석(1989)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2. 韋元學(1985) 「地域理論으로서의 擇里志에 關한 研究-現代地域理論과 比較論의 接近」,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92p.
13. \_\_\_\_ (1992) 「韓國의 傳統的 地域理論에 關한 研究-擇里志理論을 中心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4. \_\_\_\_ (1993) 「擇里志研究」, 新陽社.
15. 劉元東(1983) "淸潭 李重煥", 「한국실학개론」, 정음문화사, pp. 123-144.
16. 李夢日(1991) 「韓國風水思想研究」, 일구사, pp. 106-199.
17. 李永澤 譯(1975) 「擇里志」, 삼중당문고.
18. 李翼成 譯(1989) 「擇里志」, 을유문고, 을유문화사.
19. \_\_\_\_ (1990) 「李重煥 擇里志」, 한길사.
20. \_\_\_\_ (1994) 「擇里志」, 을유문화사.
21. 李鐘弼의 3인(1983) 「嶺南地方 固有聚落의 空間構造」, 영남대출판사, pp. 172-175.
22. 李燦(1983) "擇里志에 對한 地理學的 考察", 「애산학보」, (3):1-29.
23. 全相運(1976)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pp. 320-330.
24. 張聖浚(1978)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力에 關한 考察", 「한국건축학회지」, 22(85):15-22.
25. 鄭基浩(1990) "擇里志의 文意的 考察", 「한국조경학회지」, 17(3):49-57.
26. \_\_\_\_ (1993) "擇里志의 景觀論의 考察:卜居總論 「山水」를 中心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1(3):1-10.
27. 鄭杜熙(1988) "李重煥", 「韓國史 市民講座」3집, 一朝閣, pp. 119-139.
28. 朱南哲(1980) 「韓國住宅建築」, 민음사.
29. 崔杞秀(1989)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 傳統景觀解

- 析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51p.
30. 崔吉城譯(1990)「朝鮮의 風水」, 村山智順 著, 민음사.
  31. 崔永俊(1990)「擇里志:韓國的 人文地理書」, 『진단학보』, (69):165-189.
  32. \_\_\_\_ (1994)「풍수와 『擇里志』」, 『韓國史 市民講座』 14집, 一朝閣, pp. 98-122.
  33. 崔昌祚(1984)「韓國의 風水」, 민음사, pp. 23-322.
  34. \_\_\_\_ (1990)「좋은 땅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  
집, pp. 86-435.
  35. 崔昌祚, 朴英漢(1978)「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析」, 『지리학』, (17):21-39.
  36. 許 雄(1983)「국어사의 측면에서 본 국문판 擇里志의 언어분석」, 『애산학보』, (3):31-54.
  37. 洪以燮(1974)「『擇里志』에 나타난 李重煥의 사상」, 『서울평론』, (19):22-27.